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11월 첫 번째 29권 19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한,미 근무지원단 협조회의
무인항공기비행훈련

3면 군관련 소식
1/15 포병대대 서울랜드 방문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18의무사 평택지역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 Mania

8면 안녕하세요
이수영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 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백선엽 장군 리더십상 시상식

카투사 신문 최의진

메달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는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 백선엽 예비역 대장, 김종우 선임병장과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10월 21일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한 MPTF(Multi-Purpose Training Facility)에서는 백선엽 장군상 시상식이 있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1920년 평양 출생이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당시에는 대령의 신분으로 1보병 사단의 사령관이었다. 전쟁 중 그는 한국군 최초의 대장으로 취임했으며, 다부동 전투를 포함한 한국전쟁의 열 번에 걸친 주요 전투에 모두 직접 참전했다. 백선엽 장군은 한국군 역사상 가장 화려한 업적을 남긴 뒤 1960년 예비역으로 전역하였고, 그 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특사의 신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 날 시상식은 병장 오디 머피 클럽 시상식, 메리 워커 메달 시상식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를 비롯한 많은 장병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양국 국가 연주, 수상자들의 가족 및 친지에게 축하의 꽃송이 전달, 의장대 공연, 시상식의 명칭 유래 및 소개, 본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많은 장병들에 대한 수상이 끝난 후 웰치 주임원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장병들을 기리는 영상물을 상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지금도 군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수상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왔던 자신,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행사 참가자 전원이 'Army song'을 부르며 행사를 끝맺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출구까지 일렬로 서서 행사 참가자들 개개인과 악수를 나눈 수상자들 중 미8군 501전투지원여단 498전투지원대대 61정비중대 김종우 선임병장은 "처음에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정말 자신이 없었고 영어도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하나 직접 해나감에 따라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군생활에 도움도 되며 아는 것이 많아지니 후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보드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김병장은 "특히 드와이트 윌리엄스 501 전투지원여단 주임원사가 물심양면 대회 준비를 지원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일병 김도호

용산기지 이전 공식 서명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UA: Umbrella Agreement)와 이행합의서(IA: Implementing Agreement)에 대한 공식 서명이 26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25일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공개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 합의서에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 공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들 외에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게리 트렉슬러 주한미군부사령관(공군준장) 등도 참석, 서명하였다.

19일 공개된 UA,IA 전문에 따르면 용산 등 서울 지역 미군 기지 118만 평 중 연락사무소용 부지 2만5000여 평을 제외한 115만 평을 반환하고 우리 정부가 평택 지역에 52만 평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IA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건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 시설을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부 인근 헬기장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반환 시기와 관련해 2006년까지 8군 종교 휴양소, 캠프 그레이, 캠프 모스가, 2008년까지 유엔사 구역, 극동공병단 구역, 서빙고, 캠프 킴, 캠프 코이너, 용산 메인,사우스 포스트, 성남 골프장, 니블로 막사, 한남 빌리지가 반환되는 등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기지 이전 비용은 잠정적으로 30억~4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 최의진

지난 10월 21일 용산 사우스포스트의 MPTF에서 열린 보드대회 우수 성적 카투사에 대한 시상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501전투지원여단 498지원대대 사령관 로렌스 코미니악 중령과 수상자인 498지원대대 305병참중대 이용주 선임병장.

한,미 근무지원단 상호 협조회의

제공사진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박종선 준장이 14일 오전 근무지원단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근무지원부대 협조회의에 앞서 티모시 케이 멕널티 미 제2지역 시설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미 제2지역 시설사령부가 전/평시 경계작전 협조 체계 구축과 한/미 양국 장병 우호 증진을 위한 협조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청사의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군 부대이고 미 제2지역 시설사령부는 용산 기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미군 기지의 방호 책임을 맞고 있는 부대. 이 두 부대는 서로 담장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부대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교류를 갖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상호 협조 속에 경계작전을 펼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부대 방호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박종선(육군 준장)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의 판단에 따라 이번 회의가 추진된 것이다.

양측 부대 지휘관/참모, 경계작전 실무자, 경계작전 책임 부대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전/평시 경계작전 협조 체계 구축, 테러 대비 작전 협조 체계 유지, 양 부대 장병들 간 우호 증진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 근무지원부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 보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미 제2지역 시설사령부 관계자는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근무지원단장은 "앞으로 양 부대 간 자매결연 추진, 부대 주요 행사시 초청 등 우호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경계작전 관련 협조 회의도 상호 부대를 방문하며 주기적으로 실시, 보다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일보 제공

정찰용 무인 항공기 비행훈련

지난 10월 21일, 캠프 모빌에서 정찰용 무인항공기 '새도우(Shadow)-200'의 비행 훈련이 있었다. 미 육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에 주한미군에 도입된 새도우-200은 지상에서 원격 조종되는 수색 정찰 무인 항공기로 미 2사단의 각종 훈련과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무인 항공기, 새도우-200은 102정보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10미터 정도 길이의 발사대를 멀리 두고, 한편에는 지상통제소(Ground Control Station, GCS)가 위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무인항공기는 지상통제소 내에 있는 내부조종사의 조력을 받는 외부조종사가 조종기를 이용하여 무인항공기를 발사대에서 이륙시킨다. 무인항공기 시스템에서 임무계획 및 비행체를 통제하는 최우선 장비는 지상통제소로, 차량에 탑재되어 신속한 이동 및 배치가 가능하며 발전기로 필요전력을 공급하므로 야전 운용이 가능하다. 지상통제소에는 장착물 조종사와 항공기 조종사가 각각 위치하여, 이륙 후 비행기를 통제한다. 무인항공기는 영상데이터, 음성데이터 등의 모든 정보를 즉시 지상통제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어, 만약 무인항공기가 격추되는 경우에도 적군은 어떠한 정보도 비행체로부터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기체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경우, 구비되어 있는 낙하산을 이용해 비상 착륙이 가능하다.

이 훈련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던 무인항공기 운영 소대장 댄 니돈라자 소위를 만나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새도우-200무인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것이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가 이루어지면,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고 착륙하게 된다. 비행 중에 항공기에 장착된 모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점검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는 광범위한 정찰 활동을 하게 되며, 필요한 지휘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사진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이번 훈련에서 외부조종사로 참여하며 실제로 발사 버튼을 눌렀던 조나단 마락 상병은 "훈련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염두에 둔다.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어떤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훈련이 취소될 만큼 안전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이착륙 시켰을 때, 큰 성취감을 느끼고 가장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에서 무인항공기 발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실시되었다. 발사대에 무인항공기를 장착하고 제반 준비를 완료한 후, 15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발사버튼을 눌러 발사시켰다. 큰 굉음을 내면서 항공기는 발사대를 떠났고 금방 제 모습을 감추었다. 니돈라자 소위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장비이다. 앞으로 개발될 무인항공기는 더 많은 연료를 저장해 오래 비행이 가능할 것이며, 더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인항공기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

2사단 공보실 상병 김진석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3134/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kimtaek@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택현
기자
상병 염태성
일병 신희석
일병 김도호
일병 최의진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Taek-hyun
Staff Writers
Cpl. Yum, Tae-sung
Pfc. Shin, Hee-suk
Pfc. Kim, Do-ho
Pfc. Choi, Eui-jin
Special Assistant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3134/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kimtaek@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kimtaek@usfk.korea.army.mil

1/15 포병대대,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

10월 22일 아침, 미 2사단 1/15 포병대대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과천 서울랜드로 향했다. 그 동안 영어교육을 맡아주고 있었던 동두천 상패초등학교의 소풍에 동행하게 된 것이다. 1/15 포병대대는 약 3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에 상패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날 상패초등학교 전교생 가을소풍을 맞아, 같이 영어를 공부했던 1/15 포병대대 카투사들과 미군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으로 초청받게 된 것이다.

본부포대의 더스틴 클리프만 일병은 도착하고 나서 "그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깜짝깜짝 놀랐었다.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수업내용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오늘처럼 화창한 날, 이들과 함께 소풍을 오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며 기분을 밝혔다.

오전 11시, 140명 가량의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카투사와 미군 일행은 서울랜드 입구에서 집합한 후 동물원 관람 및 점심식사, 그 후 각종 놀이기구 이용의 순으로 일정을 마쳤다.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각자 자기가 영어교육을 맡았던 학년 별로 동행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교실이 아닌, 자연 속에서 또 다른 의미의 영어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본부포대 인사과 김현욱 선임병장은 "상패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오다가 지난 6월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써전스 타임이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카투사와 미군 각 7명이 상패초등학교로 가서 각 학년 별로 수업을 맡고 있다. 그 동안 상패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우리 1/15 포병대대 카투사 및 미군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처럼 서로 초청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상패초등학교 교무부장 권혁인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이 미군들과 즐겁게 영어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흐뭇했다. 비록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지만,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15 포병대대 카투사들도 훌륭한 영어실력으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오늘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같이 지도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서울랜드는 가을날을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로 매우 혼잡하였으나, 상패초등학교 학생들은 1/15 포병대대 장병들의 인솔에 잘 따라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인근의 쓰레기를 다같이 청소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제공사진

서울랜드에서 상패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1/15 포병대대의 병사들.

본부포대의 정동렬 상병은 "영어 교육은 한번 갔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앞으로도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여러모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던 본부포대의 클린턴 무어 상병은 "처음 영어교육을 할 때 한 여학생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는데, 갑자기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하고는 막 도망을 갔던 적도 있었다. 그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로 말도 잘 안 통해서 매우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이름도 많이 알고, 서로 장난도 치며 놀 정도로 친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소 카투사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번 영어교육을 통해 카투사들과 더 가까워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

2사단 공보실 일병 여중엽

카투사 한마디

지난 군생활을 돌아보며...

18의무사 52의무대대 560의무중대
상병 여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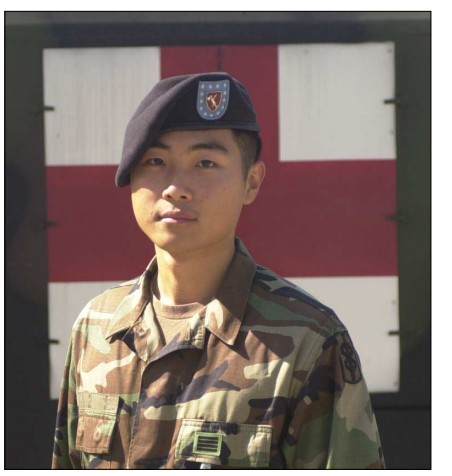
선임병, 후임병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총을 얼마나 잘 쏘느냐, PT를 얼마나 잘 하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16개월의 군생활을 돌아보며, 후임병들과 지금은 전역해버린 선임병님들.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8의무사 평택지역대 선임병장
병장 배상원

제게 군생활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뜻 깊은 시간과 여러 면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년이란 길고도 짧은 시간이 벌써 일년 반을 훌쩍 지나 어리버리하던 신병에서 후임병들만 있는 선임병이 되었습니다. 괴로웠던 시간보다 즐거웠던 시간이, 잃은 점보다 얻은 점이 더 많았던 지난 군생활, 남은 군생활도 18의무사 전우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18의무사 618치과중대
병장 김보경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군생활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찔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일들도 있었는데 모두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군복무중 제일 많이 배운 것은 규율과 위계질서 내에서 필요한 절제력과 책임감이며 카투사의 일원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군대생활이라는 인생의 한 막을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8의무사 52의무대대 568의무중대
병장 김지훈

지난 20개월은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부정하기 보다 받아들이고 즐기기로 처음부터 결심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결심은 항상 내게 모든 일들을 기대감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고 미군에게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 한미관계에 작은 버팀목이 되고 전역 후 더 멋진 사나이가 되는 것. 568의무중대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준 설레임의 무대였습니다. 02-14기 말년 전우 여러분 이제는 낙엽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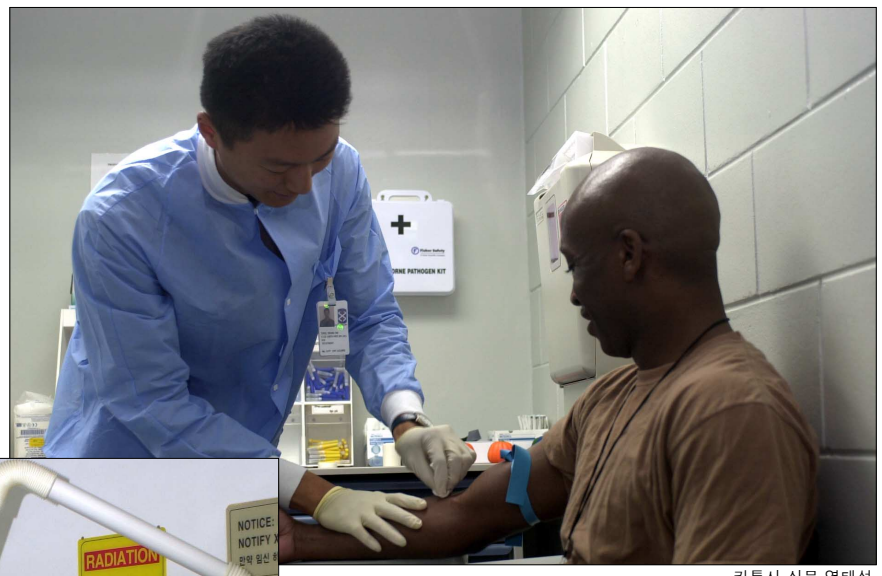
18의무사령부 평택지역대

선선한 날씨가 어느덧 성큼 가을이 찾아왔음을 느끼게 한 10월의 어느 날, 처음으로 타부대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는 캠프 험프리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이른 아침에 첫 버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했고, 운 좋게도 오산 공군기지를 경유해 가는 동안에는 처음으로 요란한 굉음의 전투기 이륙모습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는 기회도 얻었다. 잠시 후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니 18의무사 평택지역대 선임병장이자 168의무대대 선임병장인 배상원 병장이 안내를 위해 마중을 나와 주었다.

평택지역대의 18의무사령부는 크게 168의무대대와 618치과중대 그리고 52수송대대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168의무대대는 찰리중대 10명의 카투사병력이 있고, 618치과중대는 5명의 인원, 그리고 52수송대대는 560의무중대 5명, 568의무중대 8명, 377의무중대 5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대라고 하면 실내에서 환자를 돌보고 훈련 시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대보다 편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무기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야전의료훈련까지 병행하여 훈련에 임한다.

168의무대대는 방사선과, 약국, 신체검사실, 중대보급실, 의료보급실, 예방주사실, 환자행정실, 병리실험실, 인사과와 같은 다양한 업무처에 카투사들이 투입되어 캠프 험프리스 헬스 클리닉에서 미군들과 업무에 임한다. 배상원 선임병장은 "168의무대대 엑스레이 촬영 담당이었을 당시 처음 3개월 동안은 용산에서 훈련을 받은 뒤 평택으로 돌아와 근무를 했다. 사실 다른 부대원들과 비교하여 개인 여가시간이 제약을 많이 받아서 조금 힘들었다. 업무시간 외 한밤중이나 휴일이라도 환자 발생시 엑스레이를 찍어야했기 때문"이라며 전입 후 군복무중 느꼈던 점을 밝혔다. 현재 배병장은 평택지역대 18의무사령부의 선임병장직을 맡게 되어 캠프 험프리스의 18 의무사령부 소속 각 중대 병력을 모두 관리하며 168의무대대에서의 업무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9월 달부터는 선임병장직을 맡게 되어 업무시간이 일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개 중대의 위치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 중대 선임병장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호협조 하에 병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신문 염태성

카투사 신문 염태성

168의무대대 찰리중대 예방주사실에서 일하는 노성종 일병에 의하면 캠프 험프리스의 모든 병력이 미8군 사령관의 명에 따라 탄저균 예방접종을 위해 주사실을 거쳐 갔다. 대규모 인원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전염병과 같은 질병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부대 곳곳에서 스치는 사람들이 낯익을 때는 웃음이 나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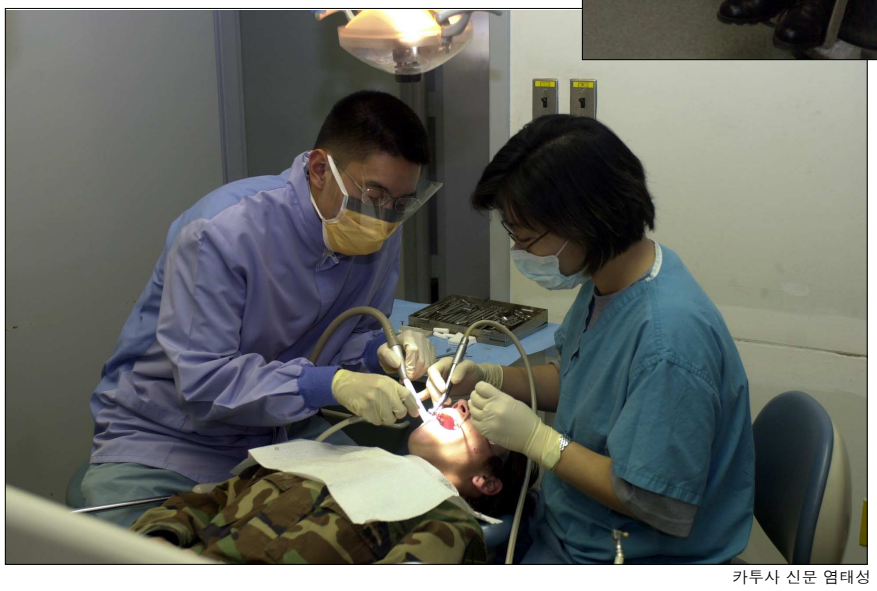
"처음에는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선후임간의 관계도 좋고 업무환경도 만족스럽습니다.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군인 가족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던 것인데, 대상자가 어린 아이일 경우 천진난만하게 웃다가도 주사가 들어가는 순간 온 병원이 시끄러워 집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약을 투입하는 것인지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의학전문용어라서 영어로는 바로 대답을 하지만 그것을 한글로 말할 때는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168 의무대대와 함께 캠프 험프리스 헬스 클리닉에서 치의료업무를 맡고 있는 18의무사령부 618치과중대 카투사 부대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개개인에게 부여된 특정 업무가 없다는 것이다. 신병이 전입하면 기초적인 치의료보조업무를 익히기 시작하여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전역할 때가 되면 다양한 일을 모두 보조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할 시에는 스케일링과 같은 업무를 직접 시술한다. 자연스럽게 치과 중대에서의 카투사들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18 치과중대의 사무엘 스넬슨 대령은 " 카투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칭찬밖에 할 말이 없다. 함께 일하고 있는 카투사들 없이는 업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 매주 수요일에 있는 정훈교육도 그들을 제외시킬 수만 있다면 제외시켜 일하고 싶은 심정 " 이라며 카투사들의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여겼다.

EFDT(Expanded Function Dental Technician- 치과보조업무를 맡은 카투사에게 좀 더 능숙한 치의료기술을 습득시키기위한 3주간의 훈련) 과정을 수료한 18의무사 평택지역대 618치과중대 김보경 병장은 업무적 특성에 관한 추억을 떠올렸다.

"실습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실수는 스케일링을 할 때 앞니에는 금을 못 씌우므로 치


카투사 신문 염태성

카투사 신문 염태성

아 색깔의 약을 두껍게 발라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치아와 구별을 못해서 손을 대었더니 치아에 구멍이 나버려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험이 쌓이다보니 실수도 없어지고, 구별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김병장에 의하면 618 치과중대는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군 장교가 한국계 미군인 관계로 업무협조에도 어려움이 없으며 업무 외 시간에도 친목도모를 자주 한다고 한다.

병원에서 업무를 하는 이들과는 달리 52 의무대대의 각 중대는 환자 후송 및 야전 의료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전쟁발발 시 377의무중대는 공중에서, 560의무중대와 568의무중대는 지상에서 부상자를 후송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52 의무대대 560의무중대 여성모 상병은 "52대대는 주로 같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 시 주된 임무는, 본부소대 소속 병력은 평시 행정관련 업무를 하다가 훈련지에서 텐트 같은 훈련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중대 소속 의무병들은 직접 환자치료를 훈련한다"고 말했다.

52의무대대 377의무중대 장영수 병장은 "377의무중대는 전시에 후방에서 환자들을 후송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부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장병장은 "중대소속 카투사들이 5명이다보니 카투사 선,후임간에 단합이 잘 이루어진다. 공급계에서 일하는 카투사들은 미군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내년에는 카투사 의무병이 한 명 추가될 예정이다. 의무병은 미군들과 거의 동일한 일을 같은 업무환경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8의무사 52대대 568의무중대소속 김지훈 병장에 의하면 568의무중대는 카투사 의무병이 3명으로 미군들과 거의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미군들과 업무공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병장은 중대선임병장으로서 중대원들 개개인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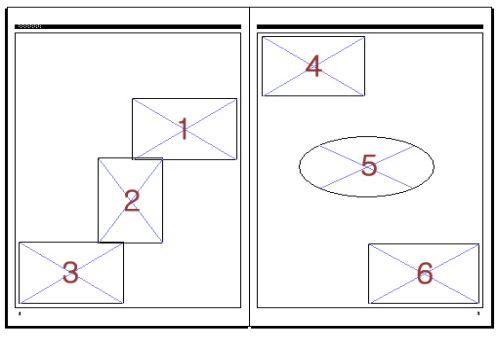
"선, 후임들이 생활하는 막사가 멀리 떨어진 편이라 보고, 전달사항이 있을 때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중대는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선임병장직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고, 얻어진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중대의 전반적 계획을 짜고, 상부 보고 등을 하는 것은 168의무대대 선임병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중대선임병장직과 원직책을 함께 수행합니다."

한편 평택지역대 18 의무사령부 카투사대원들은 작년 카투사 리그에서 준우승을 할 정도로 체력과 운동능력이 출중한 부대이다. 카투사 리그는 평택지역대에만 있는 운동 시합으로 평택 지역대장의 카투사들은 항상 함께 한다는 취지 하에 봄에는 배구, 여름에는 소프트볼, 가을에는 축구 그리고 겨울에는 농구를 종목으로 한다. 또한 이 시합은 각 대대 지원대장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된다. 평택지역대 특정 부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시합참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원이 참여하여 응원을 하며 진행되는 이 행사를 위해 평택지역대 카투사들은 항상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승팀에게는 3 박 4 일의 휴가, 상품권과 회식비 등의 부상도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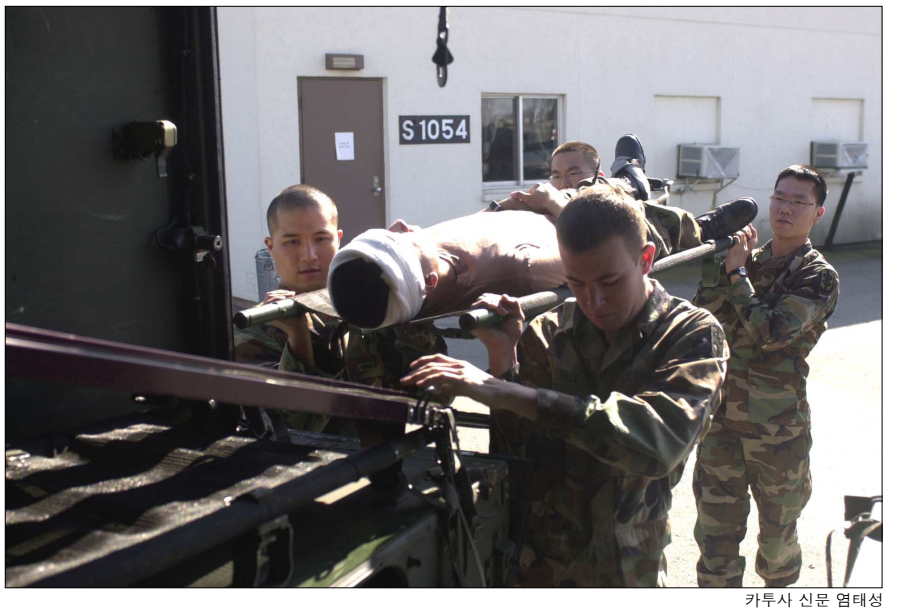
끝으로 618치과중대의 넬슨 대령은 중대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카투사들에게 "그들은 모두가 현명하고 재능있는 젊은 장병들이며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군생활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도약으로 먼 훗날 기쁘게 여겨질 것이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현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듯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8 의무사 평택지역대에서 취재를 하며 보고 느낀 점은 그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본받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환자들을 항상 배려한다.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전공과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멋진 카투사의 모습을 계속 기대해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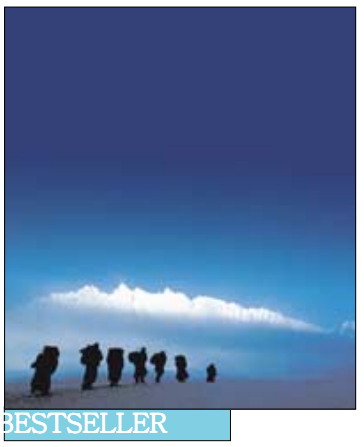
일병 김도호



1. 혈액 검사를 위해 채혈하는 168의무대대 찰리중대 최승재 이병과 검사받는 501전투지원여단 46수송중대 레너드 에킨스 병장.
2. 엑스레이를 찍는 618치과중대의 권근호 상병과 환자 콜먼 제나 일병.
3. 치아를 진료중인 618치과중대의 이충림 이병과 함재현 대위.
4. UH-60블랙호크에 주요헬기부품을 싣는 377의무중대 장영수 병장과 백영찬 이병.
5. 응급환자의 후송을 위한 UH-60블랙호크 헬리콥터.
6. Four Litter Ambulance 로 환자를 후송하는 568의무중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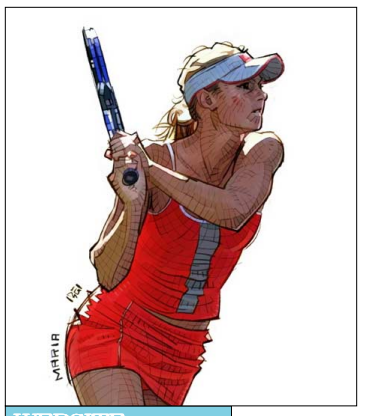
카투사 신문 염태성



용서

달라이 라마 / 오래된 미래

달라이 라마와 30년 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중국인 학자가 나누는 용서의 대화. 30년 넘게 저자인 챈은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전역을 여행하면서 둘만의 명상시간에서 부터 세계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가진 자비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를 매우 특별하게 관찰해 어떤 격식도 없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감동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이또킹

www.iddoking.com

스포츠 스타들의 일러스트를 독특한 터치로 그려내고 있는 개인 사이트. MLB 한시즌 최다안타 기록을 경신한 야구천재 이치로, 한국을 테니스 열풍으로 몰아넣은 마리아 샤라포바 등 사진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닌 거친 펜터치로 역동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의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에너지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3 장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으로 긴장되고 흥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I am very excited about it.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여기서 말하는 'be excited' 라는 표현은 '기대감과 약간의 초조감으로 인해서 흥분된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대화를 봅니다.

A: How do you feel about being transferred to the Singapore branch?

B: I am very excited about it.

A: Do you know anything about Singapore?

B: Not really, but I've been there three or four times as a tourist.

번역)

A: 싱가포르 지사로 전근 가는 것에 대해 느낌이 어때요?

B: 정말 흥분되고 기대되요.

A: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B: 별로요, 하지만 관광 차 3번인가 4번 가 봤어요.

＊사진을 거기 걸지 말고, 부엌에 거는 게 어때?

오늘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서 벽장식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연습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Instead of putting the picture there, how about purring it in the kitchen?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instead of ~ 은 '~하는 대신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화를 봅니다.

A: Instead of putting the picture there, how about putting it in the kitchen?

B: In the kitchen? I think it won't match with the things there.

A: If you think like that, what about in the living room?

B: That's much better.

번역)

A: 사진을 거기 걸지 말고 (거기 사진 거는 대신에) 부엌에 거는 게 어때?

B: 부엌에? 사진하고 부엌살림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 같아.

A: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실에 거는 건 어떨까?

B: 그게 좋겠다.

＊너 예전에 인천에서 살았지, 그렇지 않니?

친구에게 "너 예전에 ~ 했었지?" 라고 묻는 연습을 합니다. 즉, 지금은 '그렇지 않다' 는 의미죠.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You used to live in Inchon, didn't you?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used to + 동사원형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 를 나타냅니다.

대화를 봅니다.

A: You used to live in Inchon, didn't you?

B: Right, I grew up there.

A: How about your niece Jill?

B: She grew up in Seoul.

번역)

A: 너 예전에 (여기서 살기 전에) 인천에서 살았지, 그렇지 않니?

B: 맞아, 나 거기서 컸어.

A: 조카 질 (Jill)은 어떤데?

B: 질은 서울에서 자랐어.

＊좀더 빨리 올 수 있어?

약속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자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영어로는?

Can you make it earlier? 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주제연구) 시간 약속을 할 때는 make it 을 쓰면 자연스럽습니다. Can you make it? 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 라는 의미도 됩니다.

대화를 봅니다

A: Thelma, why don't I meet with you there in an hour?

B: Can you make it earlier?

A: I'll try, but you know the traffic nowadays.

B: I know it's really terrible.

번역)

A: 텔마, 한 시간 있다가 거기서 만나는 거 어때?

B: 좀더 빨리 올 수 있니?

A: 해 볼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요즘 차가 많이 막히잖아.

B: 알아, 정말 끔찍해.

＊그 친구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

주위에 보면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복숭아 알레르기 (allergic to peaches)' 가 있어서 복숭아란 소리만 들어도 몸에 뭐가 돋아난답니다. 오늘은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주제를 영어로는?

He is allergic to flower pollen. 이라고 하죠.

주제연구) 또 다른 예로 I am allergic to pork. 이라고 하면 "난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 라는 의미가 되죠.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A: What will we bring for Richard's housewarming party?

B: What about some flowers?

A: But you know he is allergic to flower pollen.

B: You're right. Well . . .what about a set of wine glasses?

번역)

A: Richard 네 집들이에 무엇을 가져갈까?

B: 꽃을 사가는 건 어때?

A: 하지만 그 친구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잖아.

B: 맞어. 그러면 . . 와인잔 세트는 어떨까?

＊야, 멋진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느날 갑자기 친구녀석이 옷을 쫙 빼입고 나타날 때 우린 이와 같은 말을 한마디씩 하죠.

오늘의 주제를 영어로는? You look cool! What's up? 이라고 합니다.

주제연구) 사전적인 의미로 cool 은 '시원한' 이란 의미이지만 구어체에선 '멋진' 이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대화를 통해 조금 더 연습합니다.

W: John, you look cool, what's up?

M: I have a blind date tonight.

W: What? Didn't you say you favor celibacy?

M: Not any more, I realized I need my own family.

번역)

W: 존, 멋진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M: 오늘밤에 데이트 (a blind date) 가 있거든.

W: 뭐라구? 너 독신을 선호한다고 하지 않았니?

M: 이젠 아니야,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 카투사 기고문

문병장의 SoccerMania

- 주말 K리그 경기를 다녀와서

최근 K리그 후반기 리그에서는 수원, 서울, 울산의 순위다툼이 바쁘다. 한국의 'FC 바로셀로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원삼성은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영원한 전통의 명가 FC서울은 10월 31일 경기를 통해서 2위 자리에 올라섰다. 울산현대도 최성국 등을 앞세워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기 리그 우승팀 포항과 전, 후반기 통합성적 1위와 2위 그리고 후반기 리그 우승팀이 진출하는 K리그 플레이오프에 출전하기 위해 각 구단들은 지금도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화려한 멤버보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수원삼성과 FC서울은 특히나 1위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욕심이 대단하다.

이러한 K리그의 숨 가쁜 순위경쟁의 열기를 느껴보고자 나는 10월 31일 K리그 후반리그 8라운드 경기인 FC서울 대 광주 상무의 경기를 관전하러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다.

현재(2004년 11월 1일) 2위에 올라 있는 FC서울과 13위 꼴찌로 추락한 광주 상무의 경기는 두 팀의 라이벌 공격수이자 영원한 친구인 김은중(서울)과 이동국(광주)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요즘 K리그에서 그 빛을 내고 있는 샤프 김은중과 대표팀에서 맹활약중인 라이언킹 이동국의 대결은 처음부터 불꽃이 튀었다. 이동국은 전반 내내 광주의 공격을 주도했으며 볼 컨트롤, 몸싸움, 위치선정 나무랄 데가 없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김은중도 초반 날카로운 슈팅과 헤딩력으로 승부를 걸었으나 결국 무거운 몸동작, 번번이 놓치는 찬스 등을 통해서 후반전에 교체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선수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마저 들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 전용구장이라는 이점을 100% 활용한 축구 시설이다. 천장 아래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서포터즈들의 목소리가 작아도 스피커를 통해서 경기장 곳곳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생생한 현장 음향을 들을 수가 있다. 게다가 상처 하나 없는 푸른 사철잔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라운드에 뛰고 싶다는 욕구까지 일어나게 한다.

FC서울은 전반 내내 광주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수비 위주로 나갔다. 김동진, 최원권 같은 올림픽 대표팀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FC서울은 젊은 패기를 앞세워 광주 상무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기 시작했다. 이날 FC서울은 박동석(GK), 김동진(MF), 최원권(MF), 이정열(DF), 김은중(FW), 정조국(FW) 같은 젊은 스타플레이어 선수들이 선발출장을 하여 세대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광주 상무는 군부대라는 특수성으로 박성배(FW), 서덕규(FW) 같은 K리그에서 '형님'이라는 선수들이 출전을 해 서울과는 대조적인 선수 연령층 대를 보여주었다.

제공사진

경기 당일 열심히 뛰고 있는 서울과 광주의 선수들의 모습.

전반이 0-0으로 끝나고, FC서울 구단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하프타임 때 경주견 레이싱 대회를 개최했고 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팬들에게 주었으며, 또 핸드폰 문자를 통한 오늘의 MVP 선수 뽑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다. 축구만 보는 것을 떠나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도 제공하자는 것이 FC 서울의 팬 서비스 전략이라고 한다. 실제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다.

하프타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후반전을 위해 다시 입장했다. 패트리어트 정조국의 눈빛이 살아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공격의 활로가 열리지 않자 FC 서울은 한태유, 이준영 같은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후반 33분에 이준영의 어시스트를 받은 정조국이 헤딩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9000여명의 FC서울 팬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정조국은 시즌 8호골을 작렬시켰다. 김동진-한태유-이준영-정조국이 빚어낸 작품이었다. FC 서울의 조광래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상황이었다.

후반 중반에 이동국이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으나 FC 서울의 차세대 수비수인 박정석의 밀착수비에 막혀 결국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다. 결국 1-0으로 FC 서울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다. 3위였던 FC 서울은 2위로 도약하였고, 광주 상무는 꼴찌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날 경기에서 많은 팬들이 근처에서 '재미있다', '볼만하다'는 평가들을 했다. 유럽축구만 재미있는 줄 알았더니 K리그 경기도 참 볼게 많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사실 축구 경기라는 것이 그렇다. 골이 터지지 않으면 관중들은 흥미를 잃게 되고, 주목하고 관심 가질만한 스타플레이어가 없으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날 경기만 보아도 우리가 아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동국, 김은중, 김동진, 최원권, 박성배, 김치곤 등 많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게다가 히카르도(서울), 산타나(서울) 같은 용병 스타들도 한몫을 한다. 이들이 나와서 국가대표급의 활약을 보여주자 팬들은 마치 국가대표 대항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팬 서비스도 과거(02년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와는 달리 무척 발전하였으며 더욱더 다양해졌고, 축구장 시설은 도무지 흠잡을 곳이 없다.

참고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표는 인터넷에서 예매하면 1,000원이 할인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LG카드 고객이면 50%가 할인된다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

경기장에 와서 혹시나 필자를 발견하게 되면 경기 설명을 부탁해도 좋다.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카투사 전우라면 전우애를 발휘해서 성심성의껏 필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K리그를 사랑해야 구단들이 발전을 하고, 구단이 발전을 해야 선수들이 발전을 한다. 결국 이러한 원동력이 밑거름이 되어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2006 독일 월드컵에서의 16강 이상의 성적. K리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탬이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 결국 우리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꿈을 먹고 쑥쑥 자라난다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축구 팬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

미 8군 공병참모부 병장 문인성

MOVIE

하나와 엘리스

감독:이와이 슌운지

주연:스즈키 안, 히로스에 료코

하나는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인 앨리스가 점찍은 남자애를 보여준다며 끌고 간 곳에서 마음을 콩닥뛰게 만드는 꽃미남 소년 미야모토를 발견한다. 뒷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 미야모토는 한 학년 선배이자 만담동호회 회원. 하나는 만담동호회에 가입해서 미야모토의 관심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은 미야모토로 인해 예기치 않은 삼각관계로 발전하는데...

TOP CHARTS

휠릴리

이수영

2.기억 상실 / 거미
3.긴 하루 / 이승철
4.Brand New/ 신화
5.문신 / 세븐
6.너에게로 또다시 / 서영은
7.오로라 / 바다
8.하루가 지나고 /JNC
9.흑백사진 /KCM
10.It's Raining/ 비
11.무정 / 이승철
12.SKY/ 러브홀릭
13.고래의꿈/Bobby Kim

가을을 닮은 목소리... 이수영

가요계의 불황 중에도 3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수 이수영과 그녀의 생방송 공연이 있었던 88체육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요즘 가장 바쁜 연예인중 한 명인 그녀는 이 날도 공연 이후 바로 다른 일정이 있어, 그 장소로 이동하는 사이에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의 인터뷰였지만, 6집 가수답게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그녀에게서 스타로서의 관록마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가수 이수영입니다. 요즘 6 집 음반을 내고 방송, 공연 일정 때문에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황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긴 하지만, 많이 사랑해주셔서 기분은 정말 좋아요. 건강은 당연히 활동을 하면 바빠지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특별히 나쁜 곳은 없습니다. 또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공연이 있기 때문에 공연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받게 된다면

저는 일단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서 무조건 쉴 것 같아요. 잠을 자거나 잠깐 휴식을 취하러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등,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불황 중에도 음반 판매 및 각종 가요순위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불황 중에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가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인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6집에서 특별히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없어요. 제가 만든 음반이기 때문에 전 곡이 모두 마음에 들고, 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만든 음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제 음반을 사서 직접 들어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을 받고 감사한 일들 모두 기억에 남고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요.

-평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가수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한 사람을 꼽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문세씨, 신승훈씨와 함께 10월30일부터 열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만나 뵙고 공연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선후배라서 '뭔가 배울 점이 있겠지' 하는 생각보다 직접 함께 작업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후배가수들과 공연을 하게 된다면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만한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목표

가수로서 거창한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큰 사랑을 받건 작은 사랑을 받건 가수로서 더 오랫동안 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카투사는 다른 군인들에 비해서 힘든 면이 덜하다고 들었어요.(웃음) 그렇지만 미군들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많이 접하게 되실 테니까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힘드셔도 참고 수고해 주세요. 파이팅! ■

일병 최의진